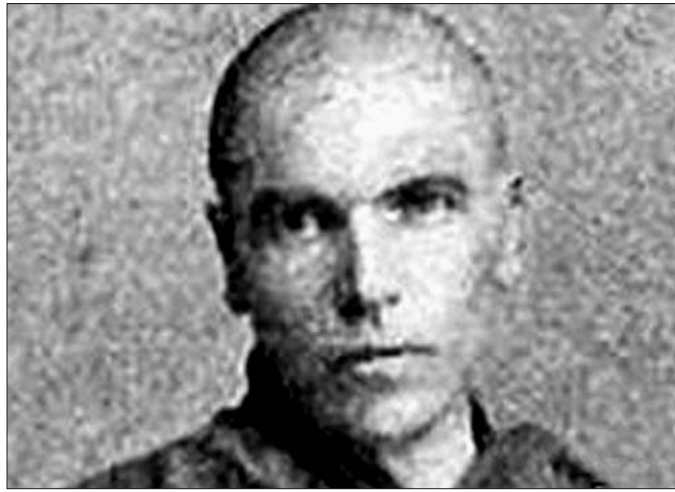


서양인 최초 구족계 수지... '담마로카' 스님

브라이언 교수, "아일랜드인으로 미얀마서 1900년 수지"



담마로카(Dhammaloka) 스님. 속명은 로렌스 캐롤(Laurence Carroll, 1856~1915 · 아일랜드)이다. 브라이언 보킹(Brian Bocking) 교수에 따르면 담마로카 스님은 1900년 미얀마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서양인 최초의 구족계 수지 스님으로 알려진 아난다 메테야(Ananda Metteyya) 스님보다 2년 앞선다.



아일랜드에는 현재 1만여 명의 불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은 포탈라 카담파 불교사원(Potala Kadampa Buddhist centre)에서 명상하고 있는 아일랜드 불자들.

서양인 최초로 구족계를 받은 스님은 누구일까? 지금까지는 1902년 테레바다 전통을 수지한 찰스 헨리 알렌 베넷(Charles Henry Allan Bennett), 불명으로는 아난다 메테야(Ananda Metteyya)로 알려졌다. 그런데 영국 국영방송 BBC는 브라이언 보킹(Brian Bocking) 교수(University College Cork, Ireland · 아시아학)의 말을 인용, "아일랜드인 로렌스 캐롤(Laurence Carroll, 1856~1915)이 문헌상으로 서양인 최초로 구족계를 받은 스님"이라는 반론을 보도해 주목된다.

첫 수계자 아난다 보다 2년 앞서 속명은 로렌스 캐롤, 선원으로 활동 3주 미얀마 방문기간 구족계 수지 서구 침탈반대하는 '반식민지' 활동

보킹 교수에 따르면 1856년 더블린에서 태어난 로렌스 캐롤은 10대 중반 미국으로 이주한 후 성년이 되어서 샌프란시스코와 요코하마를 있는 연락선 선원으로 활동하며 3주간 미얀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보킹 교수는 로렌스 캐롤이 미얀마에 머문 '3주'에 주목한다. 로렌스 캐롤이 세속의 인연을 끊고 담마로카(Dhammaloka)라는 불명으로 수계 받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담마로카란 '불법의 빛(light of the Dhamma)'의 뜻이다.

은 그보다 2년 앞선 1900년 구족계를 수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담마로카 스님은 불교연구회(Buddhist Society, 1907년)를 결성하는 등 미얀마불교계를 위해 헌신하며, "절제"를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한편, 서양인으로서 미얀마 스님의 길을 반추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르침의 주제는 '반식민지'로 옮겨갔다. 보킹 교수는 이에 주목, "담마로카 스님은 190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는 기록을 찾았다."고 전제한 보킹 교수는 "이는 지금까지 서양인 최초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이 1902년 테레바다 전통을 이은 아난다 메테야(Ananda Metteyya) 스님, 찰스 헨리 알렌 베넷(Charles Henry Allan Bennett)으로 알려졌지만, 담마로카 스님

대만 불교 자선단체 캐나다서 첫 자선행사 열어

대만 불교계의 국제자선단체 투 치(Tzu Chi) 재단이 지난 12월 20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랭글리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인 '제1회 희망의 게이트웨이'를 마련했다고 지역 언론 <랭글리(Langley)>지가 보도했다. 매년 20일을 전후해 열리는 '희망의 게이트웨이'는 투 치 재단의 대표적인 동절기 자선 활동의 하나로, 행사 당일 겨울 코트 등을 비롯해 개인생활용품 등을 담은 1,000개 선물 꾸러미를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행사이다. "2003년 캐나다 밴쿠버에 투 치 재단 지부를 개설한 이래 지부 건물의 1층 로비에서 '희망의 게이트웨이'를 마련해 왔다"고

설명한 탐 토름(Tom Torng · 투 치 재단) 대변인은 "이제는 건물 로비를 박차고 나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현장을 찾아내는 실천적인 자선 활동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 치 재단의 선물 꾸러미에는 겨울 코트를 비롯해 양말·장갑·치약·칫솔 등 개인위생 관리용품, 초콜릿 바 등이 들어 있으며, 그 꾸러미에는 겨울 코트의 색상과 사이즈를 표기해, 불우이웃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랭글리>지는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의 끈을 놓지 않는 투 치 재단의 자선 활동은 캐나다에서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



대만 불교계 국제자선단체인 투 치(Tzu Chi) 재단이 지난 12월 20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랭글리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인 '제1회 희망의 게이트웨이'를 마련했다.

적하고, "투 치 재단은 지난 4월 대형 화재를 겪은 다세대 주택단지의 피해 주민들을 돕고, 공립초등학교 학생 96명의 여름캠프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투 치 재단과 지역 주민과의 연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66년 대만에서 창립된 투 치 재단은 자선, 교육, 환경, 재단구호 등의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활동하고 있으며, '골수 기증 희망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세계의 이목을 잡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대만, 재가불교회관 철거 위기

씨유 사원 철거 후 개발...이정타이 박사 등 반발 200년간 선천파의 재가불교의 요람 사라질 듯

신타이페이 시 투청(Tucheng) 지구의 오래된 벽돌 건물이 대만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타이페이 타임즈(Taipei Times)>지는 12월 16일(현지시각) "200년간 투청 지구의 재가불교의 요람이었던 '재가불교회관(The Lay Buddhist building)'이 최근 시 당국으로부터 '철거 고지 예고'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이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여성 불교사학자를 주목했다. "시 당국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한 이정타이(Lee Jung-tai, 역사학) 박사는 "재가불교회관은 대만 특유의 '거사불교'의 한 주류를 이루었던 선천파(Hsientien School, 先天派)의 중요 사료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와 1890~1940년대 사이 대만 화단의 정점에서 있었던 불교미술가 리잉핀(Lee Ying-pin)의 벽화 등이 소장되어 있다. 타이페이 시 당국의 '철거 고지 예고'는 재가불교회관의 부지 등 그 일대의 대지 300만 제곱미터(약 90만여 평)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씨유(Cih-you) 사원이 최근 대지 일부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이정타이 박사는 씨유 사원 측에 '재가불교회관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10만 제곱미터(약 3만여 평)의 대지에 대한 재가불교회관 측의 사용권을 놓고 씨유 사원 측과 소송을 벌였으나, 신타이페이 지방법원은 씨유 사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가불교회관에는 200년 전 중국에서 건너온 일군의 한족이 지은 벽돌 건물로, 그들이 중국에서 가져온 고대 불·보상이 봉안된 것은 물론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V자 모양의 고대 불교 약

이정타이 박사는 뜻을 같이 한 불자들이 함께 재가불교회관의 문을 굳게 닫은 채 회관 내부에 머물러 있고, 신타이페이 경찰들은 회관의 아치형 입구에 '접근 금지' 테이프를 붙인 채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승려 또 분신자살...125명으로 늘어

19일 출트림 자초, 달라이 라마 귀환 요구하며 분신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분신자 수는 늘어가고있다. 사진은 한 티베트인이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며 분신한 모습.

중국 내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역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티베트인 1명이 또 당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이로써 2009년 이후 중국 내 티베트인 분신자 수는 125명으로 늘어났다. 영국 BBC에 따르면, 간쑤(甘肅)성 간난(甘南) 티베트자치주 샤허(夏河)현 아무취후(阿木去呼)진에서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 승려 출트림 자초(43)가 티베트의 국경을 초월한 활동하고 있으며, '골수 기증 희망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세계의 이목을 잡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자초는 분신 후 즉각 숨졌으며, 그의 유훈은 인근 아무취후 사원으로 옮겨져 화장됐다. 사원 내 승려 400여 명이 경찰의 제지를 무릅쓰고 자초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올렸다. 이번 분신은 쓰촨(四川)성 아바 티베트족·장(羌)족자치주에서 지난 4월 티베트인 콘쑤 체덴(30)이 분신한 지 보름만이며, 지난 2009년 이후 125명째다. 중국 당국은 분신을 방조하거나 이에 관여한 현지인들을 체포·구속하고 이들에게 최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 우담종문회

원로회
원로의장 은파
원로 원파 동파 농파 근파 정봉 영파 진파 한파 영산

종무원
종무회장 근파 부회장 농파
총무부장 능산 재무부장 해암 교무부장 목암
문화부장 자관 의전부장 덕산 기획부장 등암

교육원
불곡사 승가교육원장 영파 불모산 영산재보존회장 한파 본사 불곡사 주지 서암

감사원
감사원장 영산

법인이사회
이사장 근파 이사 은파, 원파, 농파, 정봉, 영파 감사 서암, 능산

우담종문회 종도일동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1036번지 / 전화 055)282-740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제15회 산사에서 만나는 수행과 상담 “불성으로 깨어나기”

□ 강사 : 최훈동
서울의대 겸임교수/한별정신건강병원 원장
심경상담명상센터 원장/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장

□ 내용 : 불교 명상과 심리치료를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불성)를 체험하는 치유의 과정(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원인을 바로 알고 생각의 틀을 벗어나 진정한 나로 깨어남)

□ 일시 : 2014년 1월 4일(토) 오전 9시 ~ 오후 9시

□ 장소 : 목동 국제선센터 바라밀실

□ 참가대상 : 심리치유에 관심 있는 누구나(선착순 60명)

□ 참가비 : 스님 12만원 / 일반 15만원

□ 주최 및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 신청 및 문의 : 02)737-7378, www.kbcd.org